

이번 주말 이 전시는 꼭 봐야 해!

February 17, 2018 | 이은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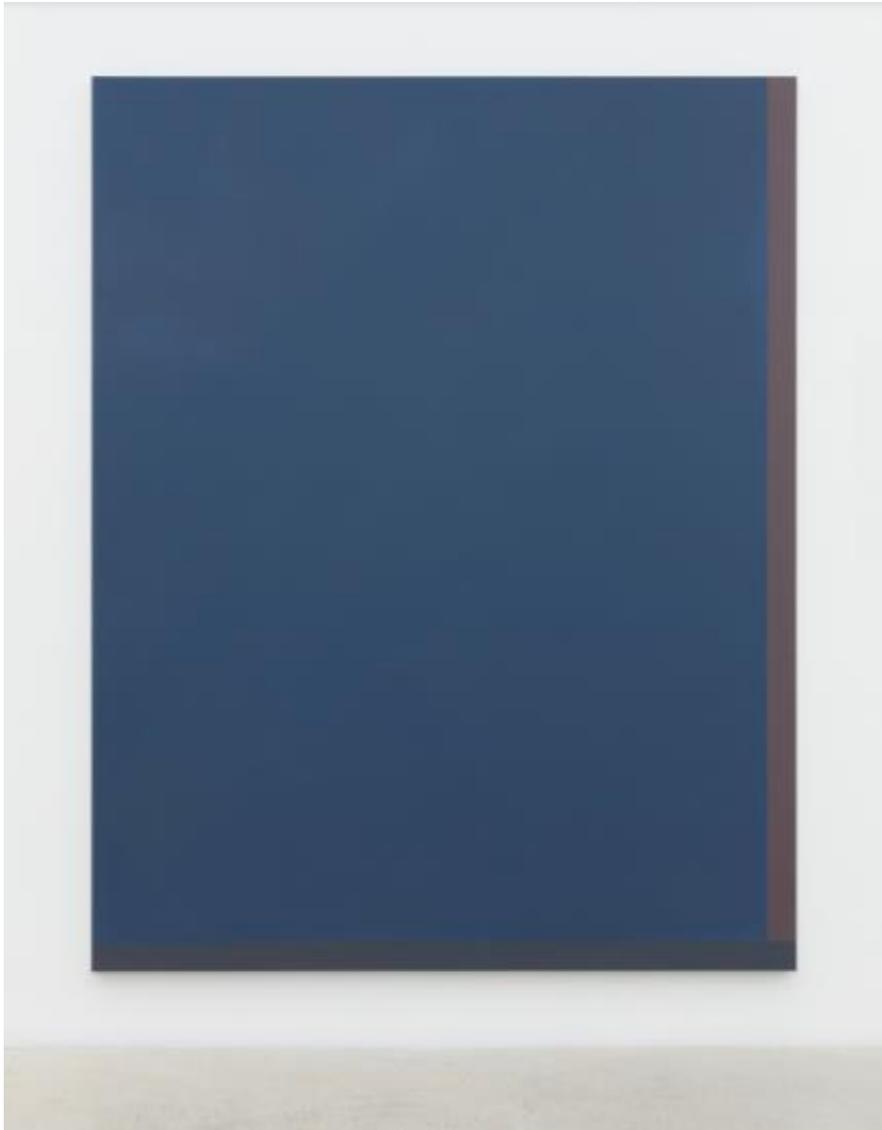
page 1 of 2

국제갤러리, 바이런 김 '스카이' (Sky)



바이런 김 '일요일 회화' 중.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바이런 김은 지난 17년간 매주 일요일 하늘을 화폭에 담아왔다. [사진 국제갤러리]

누군가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쓴다고 했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바이런 김 (57)은 하늘을 캔버스에 일기를 썼다. 정확히 말하면, 일기라기보다는 그날의 감상이나 소회를 풀어놓은 것. 그리고 그 하늘을 한 번의 길이가 35.5cm인 정사각형 캔버스에 옮겼다. 2001년부터 17년 동안 해온 일이다. 그림 제목은 '일요일 회화'(Sunday Paintings)다. 지금 국제갤러리에선 그가 일요일마다 그려온 그림 48편을 만날 수 있다. 수많은 그림 중 한국이나 여행과 관련된 작품만 고른 것이다. 화폭에 담긴 어떤 날은 구름이 스치고, 어떤 날은 회색빛이다. '맑음'도 천차만 별이다. 전시장에 걸린 '하늘'을 보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하루가 얼마나 다채로운지 새삼 깨닫게 된다.



바이런 김 대형 회화. [사진 국제갤러리]

2관에 걸린 대형 회화 '무제' '도시의 밤' 연작도 빠뜨리지 말고 꼭 볼 것. '일요일 회화'와는 다른 하늘을 보여준다. 2월 28일까지.